



**주택소유통계의 '비거주 주택 수'에는 1주택과
2주택이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.**
(파이낸셜 뉴스, 2026.08.13.)

< 언론 보도내용 >

- 2026.8.13., 파이낸셜 뉴스 「‘세제개편’ 비거주 1주택, 최소 409만가구」 기사에서
- “전국의 비거주 1주택자가 409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. 정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 가운데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.” (1면)

< 국가데이터처 입장 >

- 주택소유통계는 주택소재지와 소유자의 거주지 주소일치 여부에 따라 거주와 비거주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주택을 기준으로 구분하며, 거주 및 비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1주택 또는 2주택이상 소유여부는 동 통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.
- 따라서, 비거주 409만호에는 1주택 및 2주택이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“전국의 비거주 1주택자가 최소 409만가구”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므로 해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행정통계과	책임자	과 장	송주화 (042-481-3675)
		담당자	서기관	이은정 (042-481-2544)